

vol.129

#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www.pac.or.kr



## Speci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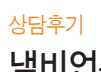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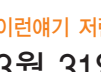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 interview

국회 문방위 전재희 위원장

2011.March

3

- 03  이달의 주요뉴스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 04  인터뷰-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재희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06  위원단상  
스마트폰에 도전하기
- 07  직원마당  
고종주 부장님의 정년퇴임을 맞아
- 08  상담후기  
냄비언론 유감
- 09  기고-서효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10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조성모 ‘사랑일기’
- 11  이런얘기 저런얘기  
3월 31일 에펠탑,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 12  위원동정
- 13  위원회 뉴스
- 14  위원회 통계현황

#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 (왼쪽부터) 심상복 위원, 이광재 위원, 이재진 위원, 박기동 선임위 부위원장, 한국연 위원, 권성 위원장, 양삼승 선임위 위원장, 전진우 위원, 원병설 위원, 민병욱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지난 2월 28일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프레스센터 15층에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두 가지 민주주의의 가치의 조화를 위해 지금까지 큰 기여를 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의 정착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양삼승 위원(64, 변호사)을 위원장으로, 박기동 위원(54, 변호사)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2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등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한편 4월 27일 실시되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3곳(분당을, 순천, 김해을), 광역단체장 1곳(강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22곳 등 총 35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 2011 상반기 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가나다순) |                                          |
|-------------------------------------|------------------------------------------|
| 양 삼 승 위원장                           | 전 대한변협부회장<br>변호사                         |
| 박 기 동 부위원장                          |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br>변호사                     |
| 민 병 욱 위원                            | 전 동아일보 정치부장<br>백석대 어문학부 교수               |
| 심 상 복 위원                            | 중앙일보 뉴욕특파원<br>중앙일보 논설위원                  |
| 원 병 설 위원                            | 전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br>배재대 초빙교수                |
| 이 광 재 위원                            | 전 KBS토론방송위원회 위원<br>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
| 이 재 진 위원                            | 전 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br>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 전 진 우 위원                            |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br>경원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
| 한 국 연 위원                            | 전 CBS 상무이사<br>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 현 선거구는 3월 17일자 기준이며, 최종 선거구는 3월 31일 확정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전 재 희 위원장

1994~1998

광명시 시장

2008~2010

제47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007~2008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2~現

경기 광명시를 국회의원(3선)

언론  사람은 위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8일 국회 문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재희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여성 1호’의 타이틀로도 유명한 전 위원장은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문방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공정한 언론문화 정립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재희 위원장이 이끌어 나갈 문방위가 대한민국을 문화대국으로 이끌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Q.** 행정고시 합격 여성 1호, 중앙부처 여성 국장 1호, 민선·관선 여성 시장 1호 등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계시고, 여성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요?

어느 자리에 가든 여러 가지 여성 1호 타이틀로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타이틀들이 자랑스럽지만은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뒤쳐졌다는 증거니까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공직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인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 이민 가서 뿌리내리려고 애쓰는 이민자 같은 심정이었어요. 또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남동생들과 똑같이 지원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려 많이인 제게 더 공을 들이신 것도 같아요. 그 시절엔 흔치 않은 일이었죠.

**Q.**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장관으로 있는 동안 신종플루 대응, 연금제도 개혁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감하고 급박한 사안들에 유연하게 잘 대처했다는 칭찬도 많이 받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장관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하고 책임 시절 내내 관심을 두었던 분야는 저출산 문제였습니다. 저

출산 노령화는 이제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UN 통계청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현재 69억 명에서 2050년 91억 명으로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4천9백만 명에서 4천2백만 명으로 14% 감소할거라고 해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186개국 184등입니다. 장기간 내전중인 보스니아와 국가라기보다 도시라고 해야 할 홍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세계 꼴찌예요. 작년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37세였는데 2050년에는 57세까지 높아진답니다. 또 작년에는 젊은이 일곱 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됐는데, 2050년에는 젊은이 1.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그 부담을 못이겨 아이 낳기를 더 꺼리거나 외국으로 이민 가버리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비단 복지부 한 개 부처가 챙길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젊은 부부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 많이 낳으라는 당부를 빠뜨리지 않아요.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아예 독신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데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관 시절에 복지부와 소관 기관의 미혼 직원을 대상으로 미팅 행사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 행사가 확대되어서 다른 부처와 일반 기업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로 비슷한 행사를 기획하는 기관, 기업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맺어진 1호 결혼 커플 결혼식에서는 제가 생애 첫 주례를 서기도 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꾸준히 이어져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지 않고,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 Q.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문방위를 이끌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중에 이름이 제일 길어요. 그만큼 할 일도 많습니니다. 정부부처,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 소관기관만 72개 기관이고, 이외에 관련된 단체, 협회까지 헤아리자면 끝이 없어요. 문화 향유의 문턱을 없애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일, 스포츠 저변확대로 제2, 제3의 김연아, 박태환을 키우고 동시에 국민체력을 증진시키는 일, 관광자원 개발로 한국을 알리는 일, 현대 생활양식의 중심에 있는 미디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 이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분야의 일만 제대로 해도 대한민국 국격을 한참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법 등 민감한 사안이 많아서 문방위가 여야 대치하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각 당, 각 위원

님들이 소신에 따라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다가 생긴 일이지만 국민들께는 참 송구스러운 일이지요. 저는 무엇보다 문방위가 배려와 타협, 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입법, 정책을 위해 협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Q. 선거 때마다 별도로 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4월 27일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가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균형 잡힌 언론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민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가 있을 때 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기간에 설치되어서 활동하다가 해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상설화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 없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와 운영상의 문제일 텐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왜곡·편파보도에 의해 훌륭한 일꾼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 Q. 언론중재위원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주시다면?

우선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과 중재, 언론피해와 관련한 법률상담 서비스, 불공정 선거기사심의 등 공정하고 균형 잡힌 언론문화 정립을 위해 애써 오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든 다섯 분의 위원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보도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특히 서민일수록 언론중재위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활동,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확대하고, 소식지도 일반 국민들이 접할 기회가 많은 은행이나 관공서 민원실, 병원 대기실 등에 배포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언론중재를 통해서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창립 30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언론문화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및 사진 / 남승균  
홍보팀



# 스마트폰에 도전하기

이 호 성 위원  
충북중재부  
청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무엇이든 빨리 변하고 복잡한 세상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따라가기조차 버겁다. 옛날이 좋았지 하며 팔짱끼고 있다가는 구세대 취급당하기 십상이다. PC에서 랩톱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태블릿PC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휴대전화기는 이미 스마트폰이 대체다. 뉴미디어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케이블이나 위성 TV는 이미 앤티크가 돼버렸다. 어느새 고화질 IPTV나 스마트TV로 대체되고 있다. 3D 입체TV도 나온다고 한다. 매체 진화는 어디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텔레비전 시청하는 일도 간단치 않다. 한때 바보상자로 불리던 텔레비전은 이제 복잡하고도 현란한 첨단 기계가 돼버렸다. 적당히 대하기가 두렵다. 어느 채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골라봐야 할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리모컨을 요리조리 조작하면서 이 복잡한 기계를 잘도 다룬다. 시청하면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는가 하면 다른 채널의 프로그램을 예약하기도 한다. 경탄스러울 뿐이다. 어느덧 나도 구세대가 돼버린 것인가.

메신저나 온라인 카페, 블로그, 개인홈피가 유행하는가 싶어 따라 했더니 어느새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등장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소통을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무실이나 집과 같은 공간에 비치돼있는 PC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이나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 굳이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사이버 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운전할 때는 위성항법장치가 길 안내잡이 역할을 한다. 원거리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무인 은행업무 처리도 일반화되고 있다.

매체나 통신기기의 발전과 함께 일상생활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이름의 커피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들어서고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가보면 음식 주문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 커피전문점의 커피 종류는 왜 그리도 많은지 정신 차리지 않고 주문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영화를 보거나 쇼핑할 때도 생소하고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포인트 적립이니 할인이니 하며 이 카드 저 카드를 요구하는 말들이 복잡하고 골치아프다.

이처럼 빨리 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는 당연히 젊은 세대가 주

류가 된다. 적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는 주변부로 밀려나기 쉽다. 문자 교환이 제대로 안되거나 첨단기기 다루는 것이 어설피면 이들로 부터 어이없는 면박을 당할 수도 있다. 일상적인 대화도 점점 힘들어진다. 축약형 말이나 톡톡 내뱉는 듯한 이들의 말투가 여간 낯설러운 게 아니다. 욕설로 터부시 되던 말들도 그들의 세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그렇다고 잔소리라도 할라 치면 외면받거나 왕따당하기 일쑤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전화나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는 이들과는 취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함께 산으로 들로 등산이나 소풍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협상이나 타협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패밀리 레스토랑을 선호하는 이들이 허름한 갈국수나 감자탕 집을 고집하는 구세대를 좋아할 리 만무다.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거리는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이 역시 좋게 보이지 못한다.

이들은 뇌 구조부터 특별하다. 당연히 취향이 이질적이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도 다르다. 친구들과의 약속시간에 늦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손에 핸드폰만 들려 있으면 말이다. 이들은 종종 기성세대가 구축한 질서나 규범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 순종적인 듯 하다가도 이해관계가 걸린 이슈가 제기되면 어느순간 격렬한 저항을 보이기도 한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라는 공간에서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동일 문화권에 산다고 할 수도 없다.

21세기 디지털 정보시대를 맞아 이질적 세대 간의 소통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 쪽에서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에 참여해야 한다. 신세대는 어른 세대를 향해 구닥다리 아날로그라고 폄하하지 말자. 그들의 구수한 옛이야기를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견해 보자.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하자. 어른들 역시 신세대를 향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이라고 나무라지 말자. 그들의 역동성과 자유분방함을 통해 젊음의 기운을 듬뿍 받아보자. 지금 당장 그들이 죽고 못사는 스마트폰이라도 구입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보자. 누가 아는가, 의외로 재미있는 세계가 그 속에 펼쳐져있을지.



# 고종주 부장님의 정년퇴임을 맞아



황 난 희  
부산중재부 간사

부장님! 안녕하세요. 어느새 윤초진 어깨위로 피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폭설이 그치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이 봄에 29년 동안 재직하셨던 곳을 떠나 법의를 벗으시는 감회가 남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작 퇴임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난 4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 서운한 마음 글한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갑자기 중재부장 직을 그만두시게 되니 더욱 저송하고 아쉬운 마음을 남습니다.

부장님! 퇴임 이후 모처럼 평안하고 여유로운 시간 갖고 계시리라 짐작됩니다. 이번에 퇴임하시면서 남기신 책 재판의 법리와 현신을 받고도 제가 답신 드리는 것이 많이 늦었지요. 개인적인 인로 시간을 허비하니가 툴툴이 판결 문장론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면서 괜히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위원장 취임 이래 1995년 정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방에는 사건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무소에는 직원이 혼자 근무를 하고 심리가 있을 때만 서울에서 조사관이 출장을 내려오는 식이었죠. 이후 정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에도 사건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2005년 언론중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조사관의 지방출장이 잦아지면서 1996년 부산사무소를 시작으로 지방에 소장이 삼국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어느새 저도 위원회에 근무한지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제가 모신 중재부장님만 해도 15분이니 꽤 쉽니다.

부산사무소에 입사할 당시 저도 당연히 혼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초기라 모르는 것투성이인데 혼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미평의 의논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형인들이 제출하는 판결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문은 있는데 해 그전 결론이 내려졌는지 이해하는데 상당한 인내와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내용도 복잡했는데 어려운 법률용어와, 덩어리진 문장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핵심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제가 당시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때라 '판결문은 원래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뒷세대이신 분들은 어려운 한자어나 숙태, 일본어투 문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문법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긴가민가 흘러버리기 일쑤고 필요한 때만 잠깐 훑어보는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 우리말 문법과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부장님의 책을 읽으니 당장이라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위원회 근무하면서 모신 부장판사님들 중에는 남산의 직분에 충실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항행로 부장님도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 당시 항부장님께서는 형사부 재판장이셨는데 유급단속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심까지 올라온 생명형 피의자에게 또 다시 집행유예를 주어야할지 실형을 주어야할지 고민하시다가 결국 경관관 입회하에 직접 유급중점 체험을 하신 겁니다. 붉게 삼기된 부장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특정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에 모두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장님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 중 한 분이 아니기 생각합니다. 법관으로서의 직무에 너무 충실해서 그 일이 문학과로까지 이어지신 것 같으니가요. 법학과 문학이 사관과 사물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통한다는 그 말뜻이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도 공감하게 되네요. 언제나 입가의 온화한 미소가 그윽한 눈빛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묵직한 사관과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신 부장님의 그 모습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부장님! 다시 한 번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는 좋은 글 많이 지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 냄비 언론 유감

김 문 성  
접수상담팀 차장

최근 서울대는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음대 A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 A교수는 음대 특유의 '도제훈육(徒弟訓育)'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제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각 대학 예체능학과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학생들의 제보를 근거로 전에 없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금이라도 비상식적인 교수법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믿음만한 제보도 접수되지만, 개인적 감정에 서 비롯된 근거없는 투서도 난무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언론에 노출되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 당사자들의 명예가 침해되더라도 특종에 목마른 일부 언론에 의한 '맞춤형' 기사-다소간의 과장이 곁들여진-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서울대 K교수 사건이 터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통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모 대학 미대 교수라고 소개한 남성은 A교수 사건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봤다며, 언론에서 본인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제보 하나에 의지해 '몹쓸 교수' 범주에 억지추향식으로 끼워 맞춘 기사를 냈다며 분개했다.

상담인은 미학적인 가치를 논하는 수업 내용을 언론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꺼리

로 매도했으며, 자신을 학생을 심하게 차별하는 몰상식적인 교수로 몰아간 것에 대해 상당히 마음 아프다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위원회를 방문했다. 위원회 상담실 한켠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건의 진실여부를 떠나 당사자의 입장을 단 몇 줄이라도 실어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언론이 전혀 없는 가상의 사건을 기사화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상담인이 피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자의적인 확대해석과 비논리적인 유추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릇된 보도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론은 '냄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의 책

## 대중문화의 이론과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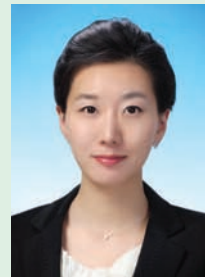
최양묵 지음 | W미디어



MBC 라디오 PD 출신으로 성균관대와 동덕여대 등에서 강의한 바 있는 최양묵 전 MBC 프로덕션 사장이 최근 대중문화 총서 「대중문화의 이론과 현장」을 출간했다. 저자는 자신의 방송 제작과 대학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중문화 이론들을 소개했다고 설명하며, 문화와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 텔레비전 이론, 연기론, 영상이론,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대중문화의 장르 모두를 개괄한다. 또한 시청률, 한류, 변화된 드라마 제작 시스템, 버라이어티 쇼 등 대중문화의 최신 트렌드를 짚어주며 정보화, 글로벌 미디어, 매스커뮤니케이션 등 신문방송학의 개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이야기 사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와 세계 3대 영화제, 우리나라 대중상 영화제의 역대 수상작품 목록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양식도 수록하고 있다.



##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서 효 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4월 27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성·형평성 등에 어긋난 보도에 대해 자체심의를 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사항을 심의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 청구를 하였으나 언론사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그 청구가 위원회에 회부된 때 이들을 심의하여 권고·주의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역할이 요구되는 까닭은 우리 선거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의 언론은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간의 선거에서 언론은 후보자에 대한 진지한 검증보다는 각종 추측성 기사, 자극적인 사생활 위주의 보도 등에 치우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언론의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불신과 선거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켜 투표율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이를 통해 국민은 주권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국민은 정보비대칭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각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언론에게 기대하게 된다. 언론은 각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평가하고 각종 비리를 보도할 수 있으며, 공약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언론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거나, 회사의 이익과 연계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만 편중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은 본래 시민의 파수꾼(watching dog)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본질이자 사명으로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및 TV, 각종 통신장비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매우 빠르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유권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할 위험이 있다. 결국, 선거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역기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거기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즉,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우리 선거문화가 요구하는 일종의 거름장치(filtering)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고, 구성원도 정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과문·정정보도문·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주의·경고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재심청구도 가능하다. 따라서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거기사심을 통해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및 정당한 선거결과라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정한 언론보도와 올바른 선거문화 형성은 궁극적으로 언론인들과 국민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의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도 치러진다. 이번에도 득표율 못지않게 투표율이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실망과 선거에 대한 회의로 투표율은 낮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대표의 정당성이 약화되어 또 다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건전한 언론보도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 조성모 '사랑일기'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슈퍼스타 K〉와 〈위대한 탄생〉에 이어서 등장한 〈나는 가수다〉가 큰 이슈를 낳고 있다. 프로페셔널 가수들의 경합이라는 컨셉으로 등장한 〈나는 가수다〉는 이제 2회가 방영되었는데 벌써 많은 관심을 넘어서 찬반양론까지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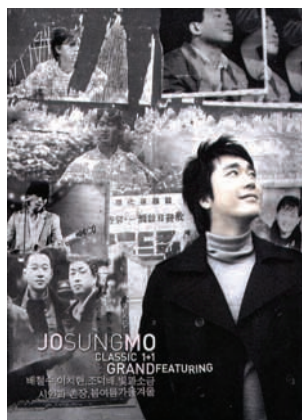
〈나는 가수다〉를 비롯해서 TV 속의 음악 리얼리티 쇼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만한 거리들을 던지고 있다.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여전히 견고한 가창력에 대한 신화, 프로듀서 시스템의 역할과 문제점, 대중과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붕괴된 시스템, (완벽히 소외된) 평론가의 역할 같은 음악 내부적인 문제부터 예술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고, 예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간여하는지와 같은 미학적인 문제까지도 이야기 해볼 수 있다(개인적으로 〈씨씨봉 콘서트〉도 포함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 가지 명백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바로 '음악이 장식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주 사소한 생각거리다.

지난 3월 13일 〈나는 가수다〉 방송분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자신의 히트곡을 부른 사전 무대에서 7명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던 정엽이 중간평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정엽의 화려한 역전이 시사하는 것은 음악에서의 '편곡의 역할과 기능'이다. 아시다시피 정엽의 가창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다른 가수들과 차이가 있다면 그가 리메이크해온 주현미 원곡의 '짝사랑' 편곡이 돋보였다는 점이다. 중간평가인 탓인지 적당히 피아노 반주를 곁들이면서 선율을 노래하던 다른 가수들과는 달리 정엽은 원곡의 새롭게 재해석한 편곡으로 전혀 다른 스타일로 완성된 음악을 선보였다. 1989년 발표된 '짝사랑'은 22년이 지나 2011년 정엽의 R&B 슬로우 '짝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듯 했다. 파워를 겸비한 기교로 애간장을 녹이던 주현미의 트로트 곡이 정엽에 의해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모타운(Motown) 사운드 스타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은 분명 인상적이었다.

정엽의 사례는 음악에서 가창력 외에 편곡과 같은 요소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잘 드러내주었다. 정엽의 무대를 경험한 다른 가수들조차도 입을 모아 "문제는 편곡"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편곡은 음악의 스타일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엽의 경우 그가 직접 편곡한 것은 아닐 것이다. 프로그램에서도 편곡의 과정이나 작업을 담당할 사람은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엽을 7위에서 1위로 수직 상승시킨 원동력이 바로 그 드러나지 않는 편곡의 과정과 작업이라는 사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아마 앞으로도 프로그램에서 점차 편곡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동시에 재미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곡은 조성모의 '사랑일기'이다. 아시다시피 이 곡은 1986년에 발표된 시인과 촌장의 2집에 실린 곡을 리메이크한 것이다. 원곡은 차분한 통기타 반주에 희망과 의지로 가득한 삶을 긍정하는 노랫말로 큰 인기를 얻었다. 조성모의 리메이크는 삶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원곡의 아우라를 놓치지 않으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하는 신선한 해석을 보여준다. 생동감 넘치는



일렉트릭 기타 리프로 시작하는 조성모의 '사랑일기'에는 원곡에서는 조심스럽게 감지되던 약동감이 본격적으로 분출되는 느낌을 준다. 원곡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찍은 스냅사진을 차분하게 진열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조성모의 리메이크는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힘차게 구르면서 골목길을 내달리는 주인공이 만나는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편곡 덕분에 훨씬 역동적이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곡이 되었다. 인상적인 것은 조성모의 노래에 보컬을 더해준 원작자 하덕규의 모습이다. 원작자 본인도 이 노래의 편곡이 대단히 흡족했는지, 하덕규의 목소리에서는 마치 입이 귀에 걸린 사람처럼 행복한 함박웃음이 보인다. 좋은 편곡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 3월 31일 에펠탑,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남 승 군  
홍보팀

프랑스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느강을 굽어보는 유려한 곡선의 철탑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요. 모든 이들이 꿈꾼다는 그곳, 바로 에펠탑 말입니다.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세워졌습니다.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은 이를 위해 무려 5,400개의 도안을 작성했는데, 60미터 지점에 이르러서야 구멍 하나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정도로 정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허리케인급 태풍에도 여전히 끄떡없다고 하니, 당시 에펠의 공법은 최첨단의 건축기술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에펠은 열렬한 지지를 받기는커녕 온갖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에펠탑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쇠라나 들로네처럼 호의적인 인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이 미관을 해치는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설가 모파상은 자신의 동상이 에펠탑을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할 만큼 싫어했다고 합니다.

‘미운오리새끼’였던 에펠탑은 1910년 해체될 운명이었지만, 20세기 초에 마르코니의 무선전파기술개발로 정상에 통신안테나가 설치되면서 생명연장(?)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서서

히 예술의 소재가 되며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1940년 무렵에는 프랑스를 점령한 히틀러가 파리에 입성하자마자 에펠탑을 찾을 정도로 프랑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무려 2억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백조’로 탈바꿈했지요.



「La Tour Eiffel, 에펠탑」  
조르주 쇠라, 1889

오는 3월 31일이면 에펠탑이 세워진지 122년이 됩니다. 모파상은 여전히 에펠탑을 등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모습마저도 ‘파리’의 시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에펠탑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서구 산업문명의 영광과 상흔이 퇴적된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는 3월 31일은 언론중재위원회의 3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언론중재제도가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이런 이견들 역시 하나의 이야기로 역사에 녹아들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사가 ‘국민과 언론을 이어준’ 역사로 자리매김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태생의 한계와 위기의 세월을 넘어 시대의 상징이 된 에펠탑을 보며, 언론중재위원회가 훗날 소통과 공정성의 상징이라 평가받을 날이 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COMMISSIONER



## ▶ 뉴질랜드 지진현장 민간구조대 귀국보고회 참석

권성 위원장은 지난 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뉴질랜드 지진현장 민간구조대 1차 파견단 귀국보고회에 참석해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2월 26일 뉴질랜드 지진현장으로 파견한 민간구조대는 현지에서 8박 9일 동안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을 벌였다. 권 위원장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계산 없는 자발적인 원조 의사를 뉴질랜드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 위촉

안병준 위원(서울제1중재부,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은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24차 정기총회에서 독자불만처리위원으로 위촉됐다.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제기된 독자 불만을 조사·심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신문과 뉴스통신 종사자의 윤리실천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 ▶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출

정상용 위원(서울제2중재부,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2월 24일 열린 2011년도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정 위원은 "회원들이 맡긴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조합의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초빙교수로 강의

임경록 위원(서울제6중재부,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초빙교수로 강의한다.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 수원시와 무료 법률서비스 업무협약(MOU) 체결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사진 왼쪽)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월 22일 수원시와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시청 민원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 화천한옥학교

## ▶ 화림도원(華林道院) 개관식 참석

김길소 위원(강원중재부, 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 / 사진 왼쪽)은 지난 2일 강원도 화천한옥학교 내 위치하고 있는 화림도원(華林道院) 개관식에 참석했다. 화림도원에는 목공예품과 염사류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김 위원은 목공 기구류 등의 소장품을 기증했다. 개관식에는 정갑철 화천군수, 이희중 강원일보사장, 방승일 도의원, 군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포럼'에서 강연

강형기 위원(충북중재부,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2월 19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포럼'에서 '지역 창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목포시 의회가 발족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포럼'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포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극복방안 등을 모색한다.



## ▶ 제주일보 특별강연회에서 강연

권범 위원(제주중재부, 변호사)은 지난 1일 제주일보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회에서 '언론보도의 윤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권 위원은 특강에서 취재원 보호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번역서 「대안언론」 출간

이효성 위원(충북중재부, 청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Alternative Journalism」(크리스 애크슨, 제임스 해밀턴 공저)을 번역한 「대안언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블로그, 웹사이트, 길거리 신문, 방송 등을 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며, 세계적인 대안언론의 흐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체계화하고 있다.



## 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좌담회 개최



위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준영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황덕남 변호사, 중앙일보 사회부 김상우 차장, 다음커뮤니케이션 정해승 대외협력 실장, 마이니치 신문 오사와 분고 한국지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3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들과 향후 법안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2011년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위원회 관련내용 반영



위원회 관련 내용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새롭게 기재됐다. 기재된 교과서는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동화사),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비상교육) 및 정치교과서(지학사) 이다.

## 중재부장 인사이동

|         |            |
|---------|------------|
|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
| 성 명     | 고 종 주      |
| 인 사 일   | 2011. 3. 8 |
| 직 위     | 부산지법 부장판사  |
| 변 동 사 항 | 퇴 직        |

## 인터넷신문 모니터링 요원 채용

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의 보도내용으로 인한 법익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터넷신문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채용했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2011년 12월까지 585개의 인터넷신문을 모니터링하며, 시정권고보고서 및 모니터링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회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제2차 운영위원회가 3월 22일 11시 심리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총회상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중재사무관리규칙 등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계간 「언론중재」 봄호(제118호) 발간

위원회는 3월 31일 계간 「언론중재」 봄호(제118호)를 발간한다. 계간지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회고와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향후 전망, 소셜미디어 시대의 자유와 윤리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될 예정이다.

## 일본 대지진 돕기 성금 기부

위원회는 일본 대지진으로 고통 받는 일본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 16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대표 이제훈)에 250만원을 기부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임직원 일동은 이번 대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본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진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11년 2월, 언론중재위원회는...



##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2011년 2월까지 모두 221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38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8건(동의 8건, 이의 7건, 계속 3건), 조정불성립결정 23건, 기각 5건, 각하 2건, 취하 50건(피해구제 28건 포함), 계류 85건이며, 피해구제율은 58.7%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신문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66건, 인터넷뉴스서비스 54건, 방송 17건, 뉴스통신 8건, 잡지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1~2월까지 16건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8건, 반론청구 8건이었다.

### 조정신청 처리현황

| 구분<br><br>월 | 청구명 | 청 구 수 | 처 리 결 과    |             |     |     |             |     |     |        |     | 피 해<br>구제율<br>(%) |
|-------------|-----|-------|------------|-------------|-----|-----|-------------|-----|-----|--------|-----|-------------------|
|             |     |       | 조 정<br>성 립 | 직 권 조 정 결 정 |     |     | 조정불성립<br>결정 | 기 각 | 각 하 | 취 하    | 계 류 |                   |
|             |     |       |            | 동 의         | 이 의 | 계 속 |             |     |     |        |     |                   |
| 1~2월        | 정 정 | 110   | 22         | 5           | 4   | 2   | 8           | 2   | 0   | 24(11) | 43  | 60.3              |
|             | 반 론 | 17    | 4          | 0           | 0   | 0   | 0           | 0   | 0   | 0      | 12  | 80.0              |
|             | 추 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손 배 | 94    | 12         | 3           | 3   | 1   | 15          | 3   | 2   | 25(17) | 30  | 55.2              |
| 합 계         |     | 221   | 38         | 8           | 7   | 3   | 23          | 5   | 2   | 50(28) | 85  | 58.7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피해구제율=피해구제된 건수/조정건수

### 중재신청 처리현황

| 구분<br>월 | 청구명 | 청구<br>건 수 | 처 리 결 과  |            |        |        |
|---------|-----|-----------|----------|------------|--------|--------|
|         |     |           | 중재<br>결정 | 중재화해<br>결정 | 기<br>각 | 계<br>류 |
|         |     |           |          |            |        |        |
| 1~2월    | 정 정 | 8         | 8        | 0          | 0      | 0      |
|         | 반 론 | 8         | 8        | 0          | 0      | 0      |
|         | 추 후 | 0         | 0        | 0          | 0      | 0      |
|         | 손 배 | 0         | 0        | 0          | 0      | 0      |
| 합 계     |     | 16        | 16       | 0          | 0      | 0      |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1년 2월 21일 2차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28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자 신원공개 25건, 피의자 신원공개 2건, 마약 용량·용법 공개 1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6건, 일간지 9건, 뉴스통신 2건, 주간지 1건이다.

## 상담 현황

위원회는 2011년 2월 한 달 동안 188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기관 안내 33건, 재상담 예정 18건, 기타 10건, 자체종결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신문 55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45건, 방송 28건, 주간신문 18건, 뉴스통신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2011년 2월말 현재 16회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언론사 2회, 지자체 1회, 교육연수기관 1회, 인턴십 프로그램 9회, 법무수습교육 1회, 기타 2회 등이다.





# 위원회 소개

##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 신청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 신청절차

###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mailto: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http://www.pac.or.kr)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https://twitter.com/pac_news)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1년 2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FAX 02-397-3089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